

뒤쳐진 사람들

작 : 김 우근

(0) 프롤로그

암전 상태의 화면. 학교 종소리와 함께 교문을 빠져나오는 여고생들 F.I. 여고생 무리서 빠져나와 골목길로 들어가는 새이.

(1) 골목길 / 오후

투명한 화장으로 단조로운 인상의 여고생 새이. 아이폰을 두들기며 골목길을 걷고 있다.

친구1 : (달려와 어깨동무를 하며) 새이! 어디 가?

새이 : 친구 만나러.

친구1 : 남자 친구?

새이 : 아-니. 중학교 친구. 옆 학교거든. 밥 먹기로 했어.

친구1 : 뭐 먹어? 나도 배고픈데-.

새이 : 롯데리아. 같이 갈래?

친구1 : 아-니. 아쉽지만 다음에. 엄마가 빨리... 아...

친구1, 인상이 구겨진다. 둘 옆으로 추월하며 지나가는 남루한 할아버지. 할아버지가 지나가자 회색 담배 연기가 새이와 친구1의 얼굴을 덮는다. 할아버지의 떨리는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져 있는 담배꽂초 C.U. 할아버지의 정면 모습.

친구1 : 아... 길뽕. 좇갈네.

새이, 남루한 노인의 뒷모습을 뻔히 쳐다본다.

친구1 : 노인들은 정말. 아휴. 응, 여기 우리 집. 밥 맛있게 먹구. 나 간다.

새이 : 응, 들어 가.

빌라로 들어가는 친구1. 아이폰을 켜는 새이. 시간을 보곤 약속에 늦은 듯 걸음을 재촉한다.

(2) 롯데리아 앞

롯데리아 앞에서 아이폰을 보고있는 여고생 정민. 새이와 다른 교복이다.

새이 : 정민!

손을 맞잡고, 여고생들 특유의 발랄한 인사.

(3) 롯데리아 안

키오스크 주문을 마치고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새이와 정민.

정민 : 개는 어떻게 됐어?

새이 : 시험두 다가오고 해서, 미안하다고 했어. 내 스타일도 아니고.

정민 : 만나라도 보지. 시험이야 차피 끝나면...

정민, 무언가를 발견하고 말을 흐린다. 새이는 정민의 시선을 따라가 본다. 키오스크 앞, 허둥대고 있는 남루한 할머니. 줄 선 뒷사람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다. 어쩔 줄 모르며 두리번대는 할머니.

정민 : 잠깐만.

정민은 할머니에게 종종걸음으로 걸어간다. 그러곤 사람좋은 웃음으로 할머니에게 주문 방법을 친절히 설명한다.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새이 C.U.

(4) 롯데리아 안

각자의 쟁반을 들고 통유리 앞 의자에 앉으러 오는 새이와 정민.

정민 : 안쓰럽지 않아?

새이 : 응?

정민 : 아까 그 할머니. 돕는 사람은 한 명도 없구.

새이 : (열은 미소를 띄며 햄버거 봉지를 간다)

정민 :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했어.

새이는 꺼려던 햄버거 봉지를 멈춘다. 통유리 밖으로 담배피던 남루한 할아버지가 보인다. 여전히 횡단보도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. 지나가는 시민들은 코앞으로 손을 휘휘 쫓는다.

정민 : 우리도 나중에 늙어서 그러겠지? 내가 기억하고 습관 들인 건 요만큼인데, 시대는 이따 만큼 변할 테니까, 모르는 거 투성이일 거 아냐. 내 미래를 생각하면, 지금부터 돕고 살아야지.

새이, 여전히 열은 미소를 띄며 쟁반에 케찹을 짠다. 그런데 정민이 갑작스레 통유리 밖으로 배꼽인사를 한다. 통유리 밖, 아까 그 남루한 할머니가 남루한 할아버지 옆에 서서 정민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보내고 있다. 그러곤 할아버지에게 무언갈 얘기하고, 할아버지 또한 정민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보낸다. 노부부는 손을 잡고 등 돌려 걸어간다.

정민 : 귀여우서, 정말.

걸어가는 노부부의 정면 모습. 저 뒤로 통유리 속 새이와 정민이 보인다.

TITLE : 뒤져진 사람들